탐방

화인인쇄시스템

내년 상반기 신축 이전 새로운 도약

연구개발·디자인분야 강화에 주력

1987년 설립

가을이라는 표현에 맞지 않게 따가운 햇살이 아직도 여름인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켜 서늘한 가을을 그립게하던 어느날, 라벨업계의 선두주자인 화인인쇄시스템을 찾는 길은 호기심반 기대반이었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인에 다다랐을때 'ISO 인증획득' '유망중소기업선정'이라고 커다랗게 걸린 프랭카드가 한눈에 들어왔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스티카·라벨 인쇄업계는 국내에 수천업체가 있지만 투자커녕 제품을 생산하는데만 급급한 실정으로 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라벨제품의 고급화를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으로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화인인쇄시스템은 1987년 설립된 이래 삼성전관, 산성전자, 제일제당의 협력업체로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

ISO 9002인증 획득

그간 주로 삼성과 제일제당 제품만을 취급해 오다 최근 시장확대를 서서히 꾀하고 있는 화인은 최근 ISO 9002인증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화인인쇄시스템 전경. ISO인증획득과 유망 선진기술 기업으로 지정된 것을 축하하는 프랭카드가 눈에 띈다.

▲ISO인증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김선득 사장

제품공급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품질인증으로 UL, CSA를 획득하였고, FINAT, TLMI협회의 국내 유일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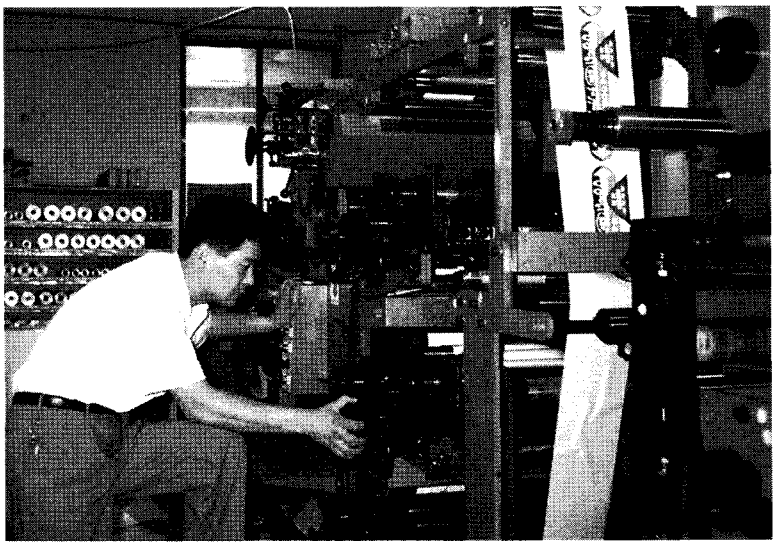
"지난 8월13일자로 한국품질보증원으로부터 인쇄·라벨·스티카부문에 ISO 9002인증을 획득하는 개가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국내외적으로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없이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이에 저희 화인은 국내 특수인쇄업계에서 최초로 획득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라고 밝히는 김영건씨는 개발실에서 라벨디자인 등의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회사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화성 제1공장과 광주 제2공장을 두고 주로 전자제품용 스티카, 식품세제용기 자동라벨스티카, 전자등 스크린인쇄물을 생산하고 있는 화인의 조직은 인쇄기술연구소, 생산팀, 제판팀, 납품관리팀, 영업팀, 영업관리팀, 품질관리팀,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4년 인쇄기술연구소 설립

1994년에 설립된 인쇄기술연구소는 특수인쇄에 관한 학술 및 기술적기초, 응용, 개발연구에 우수한 기술인력과 최신기술정보 등의 효율적

▲투명 라벨을 적용시킨 병(왼쪽)과 플라스틱 용기



▲생산공장에서 스티카를 생산하고 있는 화인의 생산과장

〔표〕 주요 생산설비 보유현황

수원 공장		광주공장	
품 명	대 수	품 명	대 수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1
라벨인쇄기	2	촬영기	1
라벨인쇄기	2	노광기	1
로타리인쇄기	1	수지판재판기	1
스리타기	1	스크린제판기	1
와인더기	2	전자사식도안기	1
SHEET CUTTER기	2	필름밀착기	1
촬영기	1	반자동스크린	2
필름밀착기	2	와인더기	1
수지제판기	2		
반자동스크린기	2		
프레스기	3		
자동커터기	1		
OFF-SET기	1		

인 운영을 통한 특수점착 위조방지, 기능성·내구성라벨등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첨단 특수인쇄 분야를 선도하고 특수인쇄에 관해 최우수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와 사업다각화에 대비한 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원들의 연구효율화와 질적향상을 위해 해외 최신기술들을 지속적으로 습득시켜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세계적 기술경향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입하여 고부가·고기능 특수라벨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투명라벨 제품 선보여

화인은 투명라벨(NO-LABAL LOOK) 제품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용기에 종이로 라벨을 부착시키는 것은 용기와의 일체감이 없는 것에 반해, 이 제품은 환경리싸이클면에서 용기와 같은 재질을 사용할수 있어 좋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며 스크린인쇄방식을 취하고 있어 인쇄효과도 뛰어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음료, 주류용 병류나 세제 등 생활용품용 플라스틱용기에 부착 가능한 이 제품은 현재로써

▲화인의 스티카 제품

는 기존라벨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고부가가치시장을 겨냥한다면 시장 가능성은 밝게 전망된다.

김선득 대표이사는 지난 87년 한국전력에서 근무하다 화인의 설립과 함께 라벨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아직 젊은 탓인지 자신감 넘치는 경영의 묘미를 펼치고 있으며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업계의 전반적인 추세처럼 화인도 현재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최고의 회사로 키우기위해 연구개발분야를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새로 신축한 건물로 이전하여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보다 나은 제품생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와 해외공장으로 동반진출하는 해외시장으로 진출도 꿈꾸고 있으며 더불어 해외 선진업체와 기술제휴하여 제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수출을 늘려 세계 시장에서의 활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히는 김 선득사장은 직접 외국을 다니며 시장을 접하고 기술과 정보를 섭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5일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망선진기술기업으로 지정돼기도 해 업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경기도내 1천여개업체가 넘는 업체중에서 선정된 것이라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화인은 기존거래선외 시장에 확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한창 노력중이다.

현재 매출은 30여억원이며 내년에는 자사 팬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매출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 사장이 직접 건출설계에 참여한 새 건물로 이전하는 내년, 고가의 설비를 증설하고 힘차게 생산에 나설 화인은 앞으로 신설업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기업의 바람직한 모습을 갖춰 나갈 것이다. ㎏

이선하 기자

업체탐방 및 제품소개는
월간「포장계」
편집부로 연락주세요
전화: (02)780-9782